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329>

JCCT 2024-11-42

##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and happiness beliefs on job enthusiasm

이해정\*, 엄세진\*\*

Hae Jung Lee\*, Se Jin E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개인적 변인인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사 195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인식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그리고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은 행복신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영유아교사,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utonomy and happiness beliefs, which are personal variabl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ffect job enthusias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5 teacher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located in Busa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recognition level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happiness beliefs, and job enthusiasm were found to be somewhat higher than average.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happiness beliefs, and job enthusiasm,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each variable.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and belief in happiness on their job enthusiasm, it was found that belief in happiness ha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d with basic data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job enthusiasm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happiness beliefs, job enthusiasm

###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출산율이 0.72명으로[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정희원, 부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신전자)

접수일: 2024년 8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5, 2024 / Revised: September 2,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sjeom@bdu.ac.kr

Dept. of Child & Education, Busan Digital University, Korea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영유아의 양육에 대해 가정뿐 아니라 영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영유아교사의 사명감이나 자질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2].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영유아교사의 직무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3].

여기서 직무란 직책에 따라 부여되어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의미하며, 직무열의란 개인의 직무상황에서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뜻한다. 즉, 직무열의란 조직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한다[4]. 이러한 직무열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면서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한 조직 내에서의 직무열의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돕고 직무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조직의 발전에 공헌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직무열의란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헌신하고 몰두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이다[5]. 개인이 직무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직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직 발전에 공헌도를 높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란 교직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학습기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직무열의 관련 연구는 금융기관, 산업체, 호텔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점 교육 분야에서 직무열의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오면서 직무열의가 기관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기관 환경 변인에서는 직무열의를 원장과 교사와의 역동적인 과정의 결과로 원장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온정적일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6].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협력적 관계[7], 원장의 인화적 리더십[8], 영유아교육기관의 협동적 조직문화[9],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10] 등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12]. 특히, 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서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 관련 변인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13][14]. 예를 들면, 교사 수면의 양과 질[15], 교사의 주도성과 자기결정성[16], 행복감과 자아탄력성[13] 등이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직무열의와 관련된 개인변인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중 현재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은 사실 그 자체의 긍정성, 유의성, 그리고 학습을 통한 개발 가능성으로 교육과 경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정서와 만족감은 개인과 사회가 최적의 기능을 하고 번영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복리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7].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는 개인으로서의 행복추구와 자신의 일터인 교육현장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교사로서의 열정과 열의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들 또한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는 순환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교육내용과 지원방법의 결정에 있어 자율권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행복, 학습과 발달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교사 대상의 행복 관련 연구들은 행복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 문제해결능력, 교수효능감,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직무만족도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행복감이 영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18][19]. 그러므로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은 교육현장에서의 직무실행에 반영되어 교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의 교육실행에서 행복감과 함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영유아교사는 교육현장의 독특성과 역동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영유아와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 실행에서 적절한 판단, 의사결정, 즉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20].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이란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수활동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1]. 영유아교사는 현장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여 영유아의 흥미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놀이를 이끌어내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22].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은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며 영유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23], 창의적인 의사결정으로 교육상황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24]. 교사 자율성과 관련된 교사 개인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유아교사 자율성은 교수 창의성[22],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며[13], 2019 개정누리과정의 놀이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성이 영유아교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높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헌신하고 몰두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인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어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개인적 변인인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2.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및 직무열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은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235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235부 중 205부가 회수되어 87.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최종 195부를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research subject

(N=195)

| 항목    | 구분       | 빈도(%)     |
|-------|----------|-----------|
| 연령    | 25세 이하   | 21(10.8)  |
|       | 26-30세   | 56(28.7)  |
|       | 31-35세   | 26(13.3)  |
|       | 36-40세   | 22(11.3)  |
|       | 41-45세   | 35(17.9)  |
|       | 46-50세   | 22(11.3)  |
|       | 51세 이상   | 13(6.7)   |
| 성별    | 여자       | 194(99.5) |
|       | 남자       | 1(5)      |
| 경력    | 0-3년 미만  | 38(19.5)  |
|       | 3-6년 미만  | 48(24.6)  |
|       | 6-9년 미만  | 42(21.5)  |
|       | 9-12년 미만 | 32(16.4)  |
|       | 12년 이상   | 35(17.9)  |
| 근무 유형 | 유치원      | 90(46.2)  |
|       | 어린이집     | 105(53.8) |
| 계     |          | 195       |

### 2. 연구도구

#### 1) 자율성

자율성 측정은 조성만(1996)이 개발하고, 연태협(2004)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정현정(2017)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26-28]. 이 도구는 학습지도 4문항, 생활지도 4문항, 학급경영 4문항, 연구 및 연수활동 4문항, 영유아교육기관 사무 3문항,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 2문항, 교직원생활 4문항으로, 총 7개 하위영역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의 측정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척도화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자율성의 Cronbach'  $\alpha$ 는 학습지도 .90, 생활지도 .83, 학급경영 .91, 연구 및 연수활동 .86, 영유아교육기관 사무 .70,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 .74, 교직원생활 .74, 그리고 전체 .95로 나타났다.

### 2) 행복신념

행복신념 측정은 McMahon과 Estes(2011)가 개발한 행복신념(BAWB: Beliefs about Well-Being) 척도를 기초로 McMahon과 류승아와 최인철(2014)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9][30]. 이 도구는 쾌락추구 4문항, 고통회피 4문항, 자아성장 3문항, 타인에 대한 기여 3문항으로, 총 4개 하위영역의 14 문항이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척도화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행복신념이 더 높은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행복신념의 Cronbach'  $\alpha$ 는 쾌락추구 .88, 고통회피 .90, 자아성장 .85, 타인에 대한 기여 .86 그리고 전체 .92로 나타났다.

### 3) 직무열의

직무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와 Bakker(2003)의 직무열의 측정도구(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에 대해 최선(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1][32]. 이 도구는 활력 5문항, 헌신 4문항, 몰두 4문항으로, 총 3개 하위영역의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는 활력 .87, 헌신 .84, 몰두 .88 그리고 전체 .95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부산광역시 영유아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에 대한 설문내용의 이해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후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통해 검토받은 최종 설문지를 가지고, 영유아교사 235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본 연구목적

을 사전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설명한 뒤, 연구협조에 동의를 구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Window용 PAS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설문지를 자료처리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III. 연구결과

### 1.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인식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 평균은 자율성 4.19(SD=.56), 행복신념 4.12(SD=.54), 직무열의 4.03(SD=.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 하위요인별에서는 생활지도 4.41(SD=.56), 학습지도 4.36(SD=.60), 학급경영 4.33(SD=.63), 영유아교육기관 사무 4.14(SD=.66), 교직원생활 4.12(SD=.64), 연구 및 연수활동 3.94(SD=.82),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 3.86(SD=.91) 순으로 높았다. 행복신념 하위요인별로는 쾌락추구 4.35(SD=.58)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아성장 4.22(SD=.60), 타인에 대한 기여 4.14(SD=.67), 고통회피 3.76(SD=.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 하위요인별로는 헌신 4.22(SD=.59), 몰두 4.04(SD=.67), 활력 3.88(SD=.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인식 정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N=195)

|     | 하위요인 | 평균 (M) | 표준 편차 (SD) | 왜도   | 첨도   |
|-----|------|--------|------------|------|------|
| 자율성 | 학습지도 | 4.36   | .60        | -.54 | -.43 |

|          |            |      |     |      |      |
|----------|------------|------|-----|------|------|
|          | 생활지도       | 4.41 | .56 | -.47 | -.05 |
|          | 학급경영       | 4.33 | .63 | -.70 | .17  |
|          | 연구 및 연수활동  | 3.94 | .82 | -.52 | -.07 |
|          | 영유아교육기관 사무 | 4.14 | .66 | -.29 | -.37 |
|          |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 3.86 | .91 | -.70 | .20  |
|          | 참여         | 4.12 | .64 | -.23 | -.60 |
|          | 교직생활       | 4.19 | .56 | -.32 | -.51 |
|          | 전체         |      |     |      |      |
| 행복신<br>념 | 쾌락추구       | 4.35 | .58 | -.68 | .15  |
|          | 고통회피       | 3.76 | .87 | -.41 | -.25 |
|          | 자아성장       | 4.22 | .60 | -.54 | -.17 |
|          | 타인에 대한 기여  | 4.14 | .67 | -.86 | 1.75 |
|          | 전체         | 4.12 | .54 | -.17 | -.32 |
| 직무<br>열의 | 활력         | 3.88 | .66 | -.30 | -.04 |
|          | 헌신         | 4.22 | .59 | -.54 | -.17 |
|          | 몰두         | 4.04 | .67 | -.47 | .17  |
|          | 전체         | 4.03 | .61 | -.43 | .05  |

## 2.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및 직무열의 간 관계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및 직무열의 총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율성과 행복신념 .56, 자율성과 직무열의 .59, 행복신념과 직무열의 .64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 $p<.01$ )이 있었다.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하위요인 간의 상관의 경우, 학습지도와 쾌락추구 .55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교육기관 사무와 자아성장 .54, 교직생활과 자아성장 .50, 학습지도와 자아성장 .49, 생활지도와 쾌락추구 .49, 교직생활과 쾌락추구 .49, 연구 및 연수활동과 자아성장 .47, 학습경영과 쾌락추구 .47, 영유아교육기관 사무와 쾌락추구 .45, 학습지도와 타인에 대한 기여 .44, 학습경영과 자아성장 .43, 연구 및 연수활동과 쾌락추구 .43,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쾌락추구 .43, 생활지도와 자아성장 .42, 학습경영과 타인에 대한 기여 .42,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타인에 대한 기여 .42, 영유아교육기관 사무와 타인에 대한 기여 .40, 교직생활과 타인에 대한 기여 .40, 연구 및 연수활동 .39, 생활지도와 타인에 대한 기여 .38,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자아성장 .38,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고통회피 .32, 교직생활과 고통회피 .28, 생활지도와 고통회피 .21, 학습경영과 고통회피 .20, 학습지도와 고통회피 .19, 연구 및 연수활동과 고통회피 .19, 영유아교육

기관 사무와 고통회피 .17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p<.01$ )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율성이 높아지면 행복신념이 높아지게 된다.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직무열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교직생활과 헌신 .5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직생활과 활력 .54, 교직생활과 몰두 .54, 영유아교육기관 사무와 활력 .54,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활력 .53, 학습지도와 헌신 .52, 연구 및 연수활동과 활력 .49, 영유아교육기관 사무와 몰두 .48,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몰두 .48, 영유아교육기관 사무와 헌신 .47, 학습지도와 활력 .47, 연구 및 연수활동과 몰두 .47, 연구 및 연수활동과 헌신 .46, 학습지도와 몰두 .45, 생활지도와 헌신 .42,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헌신 .41, 학급경영과 활력 .40, 학급경영과 헌신 .40, 학급경영과 몰두 .37, 생활지도와 활력 .37, 생활지도와 몰두 .36 순으로 모두 정적 상관( $p<.01$ )이 나타났다. 즉, 자율성이 높아지면 직무열의가 높아지게 된다.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과 직무열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자아성장과 활력 .6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아성장과 헌신 .63, 쾌락추구와 헌신 .62, 자아생장과 몰두 .61, 타인에 대한 기여와 활력 .60, 타인에 대한 기여와 헌신 .56, 쾌락추구와 몰두 .53, 고통회피와 활력 .28, 고통회피와 헌신 .26, 고통회피와 몰두 .23 순으로 모두 정적 상관( $p<.01$ )이 있었다. 즉, 행복신념이 높아지면 직무열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3.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1)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총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총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기준값이 2에 근접하므로 잔차에 대한 상관이 낮아 가정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33].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총점이 직무열의를 48%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행복신념이 41%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인다. 또한 F값 89.8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총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3. Rel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otal scores of autonomy and happiness beliefs on job enthusiasm (N=195)

|   | 독립변수 | B    | $\beta$ | t        | $R^2$ | $R^2$ 의 변화량 | F         | VIF  |
|---|------|------|---------|----------|-------|-------------|-----------|------|
| 1 | (상수) | 1.07 |         | 4.12***  | .41   |             | 133.03*** | 1.00 |
|   | 행복신념 | .72  | .64     | 11.53*** |       |             |           |      |
| 2 | (상수) | .40  |         | 1.47     | .48   | .07         | 89.84***  | 1.46 |
|   | 행복신념 | .51  | .45     | 7.23***  |       |             |           |      |
|   | 자율성  | .37  | .33     | 5.29***  |       |             |           |      |

\*\*\* $p < .001$

2)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하위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하위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0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 중 자아성장과 타인에 기여와 자율성 중 교직생활과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가 직무열의를 56%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아성장이 44%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교직생활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7% 증가하고, 타인에 대한 기여가 첨가되면 4%,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가 첨가되면 1%증가하여 전체 56%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F값 61.30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하위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4. Relativ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and happiness beliefs subfactors on job enthusiasm (N=195)

|   | 독립변수         | B    | $\beta$ | t        | $R^2$ | $R^2$ 의 변화량 | F         | VIF  |
|---|--------------|------|---------|----------|-------|-------------|-----------|------|
| 1 | (상수)         | 1.19 |         | 5.05***  | .44   |             | 149.35*** | 1.00 |
|   | 자아성장         | .67  | .66     | 12.22*** |       |             |           |      |
| 2 | (상수)         | .61  |         | 2.51**   | .51   | .07         | 100.72*** | 1.33 |
|   | 자아성장         | .51  | .50     | 8.66***  |       |             |           |      |
|   | 교직생활         | .31  | .32     | 5.46***  |       |             |           |      |
| 3 | (상수)         | .41  |         | 1.74     | .55   | .04         | 78.37***  | 2.10 |
|   | 자아성장         | .34  | .33     | 4.68***  |       |             |           |      |
|   | 교직생활         | .28  | .30     | 5.25***  |       |             |           |      |
|   | 타인에 대한 기여    | .25  | .27     | 4.12***  |       |             |           |      |
| 4 | (상수)         | .45  |         | 1.88     | .56   | .01         | 61.30***  | 1.88 |
|   | 자아성장         | .34  | .34     | 4.85***  |       |             |           |      |
|   | 교직생활         | .21  | .22     | 3.32**   |       |             |           |      |
|   | 타인에 대한 기여    | .22  | .24     | 3.53***  |       |             |           |      |
|   | 영유아교육기관 경영참여 | .10  | .14     | 2.25**   |       |             |           |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인식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행복신념,

직무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사의 자율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22][34][2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자율성의 하위요인은 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급경영, 영유아교육기관 사무, 교직생활, 연구 및 연수활동,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 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지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와 같은 조직운영은 낮은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교사가 영유아의 발달과 욕구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지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행복신념 하위요인에서는 쾌락추구, 자아성장, 타인에 대한 기여, 고통회피 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교사는 쾌락추구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쾌락추구 신념이 높게 나타난 연구[3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영유아교사는 민감한 영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역할 상황에서 행복, 즐거움 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 하위요인에서는 헌신, 몰두, 활력 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교사는 헌신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교사가 인식한 직무열의에서 헌신이 높게 나타난 연구[16][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초저출산 사회의 현시점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의미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헌신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그리고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20], 교사의 역할에서 주도성, 자기결정성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 연구[16],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변인인 행복신념과 직무열의의 상관을 밝힌 연구[36][19], 유아교사의 직무열의의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영유아교사는 외부의 통제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20],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성을 발휘하고, 교육현장에서의 긍정적 내적 특성인 행복 신념, 자신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때,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하위요인 상관관계에서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행복신념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학습지도와 쾌락추구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교사가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37]와 초등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분석연구[38]로 볼 때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복하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영유아의 학습과정에서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전개하며 긍정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지속하는 영유아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실천과 교육 환경에서 영유아교사의 심리적 행복과 즐거움이 직무수행 열의로 나타났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영유아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며 개인 내적 특성인 행복 신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며 행복한 감정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해나가며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 교사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하위요인 상관관계에서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직무열의의 수준이 높아졌다.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직무열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교직생활과 헌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 자율성 인식[39]과 교사가 학습조건, 환경을 스스로 결정하며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의 중요성[27][28]에 대한 인식이 수행할 직무에서 핵심역량[40], 창의성[41]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직무활동 자체에 자신감과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며 헌신하는 교사일수록 직무열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직무환경이 교사의 소진 및 열의[32]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42] 영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개인차, 발달, 관심, 성장을 고려하여 직무를 실행하는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행복신념, 직무열의의 하

위요인 상관관계에서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 수준이 높아졌다.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과 직무열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자아성장과 활력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와 관련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업무에 노력을 투입하려는 활력과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교사는 직무열의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환경적, 심리적 지원에서 행복신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측면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은 직무열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율성은 직무열의에 44%의 설명력을, 행복신념은 직무열의에 56%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 중 자아성장과 타인에 대한 기여와 자율성 중 교직생활과 영유아교육기관 경영 참여가 직무열의를 56%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41]와 일치하며, 영유아교사의 행복신념은 교육현장에서의 직무실행에 반영되어 교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13][1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유아교사의 자율성은 필수적이며,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이 높고, 행복신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 변인은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현장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영유아교사로서의 전반적인 경험에서 직무열의를 높이는데 자율성과 행복신념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행복신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자율성

과 행복신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연구결과로서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자율성, 행복신념이 영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 외에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세밀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Trend Survey, 2023.
- [2] B.K. Kim and K.N. Lee, "The Effects of a Working Environment, 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Teac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 12, No. 1, pp.165-188, 2021.
- [3] E.K. Park, The Effects of Grit,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on Mindset of Childcare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20.
- [4] W.A. Kahn,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3, No. 4, pp.692-724, 1990.
- [5] W.B. Schaufeli, M. Salanova, V. Gonzalez-Roma, and A. Bakker, "The Measurement of Burnout and Engage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3, pp.71-92, 2002.
- [6] S.A. Park, S.H. Bae, "Effects of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on Child Care Teachers' Job Engagement and Creative Job Performa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37, No. 4, pp.937-861, 2017.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4.038>
- [7] N.Y. Kim, S.M. Byun, D.K. Lee, and J.H. Kim,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teachers' Cooperative Relationship on Teacher Satisfaction: Using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sian Education Research*, Vol. 18, No. 4, pp.661-682, 2017. <https://doi.org/10.15753/aje.2017.12.18.4.661>.
- [8] Y.J. Lee and J.H. Jung, "A Study on the

-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lationship-centered Leadership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 and Job Engagement of the Teachers : Focusing on Consciousness of Teacher's Author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5, No. 3, pp.201–222. 2020. <https://doi.org/10.20437/KOAECE25-3-09>.
- [9] N.H. Kim and J.H. Han, "The Effect of Growth Mindset and Collabo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23, No. 1, pp.263–282. 2022.
- [10] J.H. Son and J.H. Jung, "The Effect of the Servant Leadership of Kindergarten Director on Teachers' Work Engagement: Mediator Analysis of the Culture of kindergartens and Moderating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Teacher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20, pp.267–269. 2020.
- [11] H.Y. Yoon, The Effect of Usefulness of Family-Friendly System on Job Engagement of Child Care Teacher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eomyeong University 2019.
- [12] E.J. Jo, The Influence of Teacher Efficacy on Job Engagement and Burnout in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Mediating Effects of Problem Solving Process and Goal Instabil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09.
- [13] A.N. Kim,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ing on Ego Resilience, Job Stress, Feeling of Happiness, and Job Engagemen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3, No. 5, pp.293–315. <https://doi.org/10.20437/KOAECE23-5-13>
- [14] N.C. Shin,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Teacher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b Satisfaction, the Job Involvement about the Effectiveness of School Organization,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3.
- [15] M.N. Kim, The Effects of Sleep Quality and Quantity of the Teachers on the Reattachment and Work Engage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2016.
- [16] Y.J. Kim, The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Teacher's Proactive personality, elf-Determination and Work Engage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2020.
- [17] M. Seligman, Martin Seligman's Positive Psychology, Gyeonggi-do: Mulpure Publishing Co., 2014.
- [18] S.J. Eo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597–603. 2022. <https://doi.org/10.17703/JCCT.2022.8.6.597>
- [19] S.J. Lim, E.J. Y, and H.Y. Lee,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33, No. 3, pp.301–318, 2013.
- [20] Y.M. Park,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Autonomy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22.
- [21] H.M. Zo, A Study on Relation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Moral Leadership and the Autonomy of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20.
- [22] B.H. Kim, A Study on Tendency and Relationship of Kindergarten teacher's core competency, Teacher's Autonomy, Instructional creativ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21.
- [23] D.R. Choi,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Autonomy of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18.
- [24] E.H. Park,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ory, Seoul: Changjisa Publishing Co. 2009.
- [25] M. Joo and S.O. Jang,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and Play Support Competency on the Play Implementation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2, pp.319–334. 2023. <http://dx.doi.org/10.22251/jlcci.2023.23.12.319>
- [26] S.M. Zo,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Principal's Leadership Style and the Level of Teachers' Perception of Autonom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6.
- [27] T.H. Ye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adership Style of Female Principals and the Autonomy Level of the Teachers in Elementary

- Schoo,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2004.
- [28] H.J. Jung, Influence of Kindergarten Assessment Awareness and Autonomy on Professionalism in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7.
- [29] E.A. McMahon, and D. Estes, "Measuring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The Beliefs about Well-being sca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2, pp.267-28, 2011.
- [30] McMahon, E. A., Ryu, S., & Choi, I.(2014).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ulture-level differences and correl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1), 321-339.
- [31] W.B. Schaufeli and A.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5, No. 3, pp.293-315. 2004.
- [32] S. Choi, The Influence of Working Environment of Schools on Burnout and Engagement among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us Motiv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33] H.I. Hwang, Y.S. Song, H.J. Choi, and W.K. Son. SPSS Data Analysis for Easy Learning. Kyungki: Community Publishing Co.. 2016.
- [34] E.J. Lee and J.H. Bae,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and Current Implementation toward Autonom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11, pp. 389-402,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11.389>
- [35] M.K. Lee,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on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Personality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2017.
- [36] K.M. Lee and Y.J. Choi,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Index, Character Strengths, and Job Satisfaction of Preschool Educator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3, pp.215-235, 2009. <http://dx.doi.org/10.18023/kjce.2009.29.3.010>
- [37] Y.M. Go and K.R. Lee, "The 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Learning Environment of Kindergarten and Teacher Self-efficacy Belief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5, No. 1, pp.21-37, 2004.
- [38] S.A. Lim and Y.H. Jung,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Teacher Autonom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32, No. 2, pp.101-118, 2019
- [39] Y.M. Park and H.Y. Jung,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Autonomy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 .61, No. 1, pp.75-96, 2022. <http://dx.doi.org/10.15812/ter.61.1.202203.75>
- [40] J.H. Hyun, Effect of Dycare Cnter Oganizational Clture on the Aonomy of Cildcare T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41] B.H Kim, A Study on Tendency and Relationship of Kindergarten teacher's core competency, Teacher's Autonomy, Instructional creativ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21.
- [42] S.K. Lee and J.M. Kim, "The Effects of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and Child Care Teachers' Job Angagemnt on Teac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4, No. 2, pp.579-593, 2018. <http://dx.doi.org/10.24159/JOEC.2018.24.2.579>